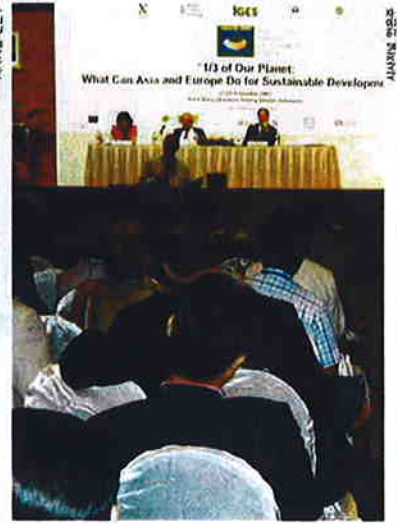


Name of Media	: Sisa News Weekly MagazineKorea
Date of Article	: 13 December 2005
Author	: Eunjoo Ahn
Pages	: 2
Notes	: Article on Asia-Europe Environment Forum 2005

사 외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 (위)은 수많은 농산물(왼쪽)이 국경을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에 환경 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이슈가 아님을 함께 채기는 자리였다.

인류가 더불어 사는 길 찾기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 현장 중계/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색

셋 중 하나만 움직여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난다.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시아와 유럽이 지구 환경과 인간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1월 23~25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이 열렸다. 아시아·유럽 지역 38개 국가에서 온 학자·시민운동가·정부 관료 2백50여 명이 아시아와 유럽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가진 것이다. 아시아-유럽재단(42쪽 인터뷰 기사 참조)·독일 한스자이델 재단·일본 지구환경전략연구소·유엔환경계획(UNEP)이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사흘 동안 열린 이 포럼에서는 열두 가지 작은 주제 아래 에너지와 환경, 자연 자원 보존과 개발 등에 관한 논의가 다채롭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포럼은 환경 문제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함께 풀어가 갈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녹색연합 김혜애 정책실장은 “중국에서 발생한 황사가 한국인과 일본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전세계인의 식탁에 오르는 세계화 시대에 환경 문제는 모두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환경 문제는 전세계인의 문제”

예컨대 ‘위험한 화학물질-생태계로 퍼지는 그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워크숍에서는 캄보디아의 농산물이 ‘도마’에 올랐다. 캄보디아 정부가 2002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캄보디아 농산물에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이 5백17종이나 적발되었다. 농약 판매상이나 농민들은 이 농약의 유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했음은 물론이

다. 이 포럼에 참석한 엔진 콰이 캄보디아 농림부 관계자는 “정부가 규제는 하지만 농약 대부분이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수입되고 있어 금지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라고 털어놓았다. 중국·베트남 참가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에서는 엄격한 규제 때문에 금지된 농약을 사용할 수 없지만 수출용으로는 대량 생산하고 있다. 캄보디아 같은 나라가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금지된 농약을 사용한 농산물이 캄보디아에서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로 수출된다는 데 있다(한국에는 캄보디아 산 농산물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다). 농약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 나라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세계 농산물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경제 체제에서는 농약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에너지나 자원 고갈 문제 역시 특정 국가에

한정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다. 포럼에 참가한 아시아개발은행(ADB) 데이비드·매킬리 박사는 "중국이나 인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환경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슈다"라고 말했다. 중국·인도 등 아시아 거대 국가들의 경제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그로 인한 환경 오염이나 자원 고갈 문제가 지구 전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만 세계 시멘트의 절반, 철강의 3분의 1, 구리의 4분의 1, 알루미늄의 5분의 1이 소비된다. 물론 이 자원들은 중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공급된 것들이다.

세계의 자원을 엄청난 속도로 소비한다는 원성을 듣는 중국이지만 이 나라 역시 다른 나라로부터 피해를 보기도 한다. 포럼에 참가한 중국인 후타오 씨는 "중국도 다른

나라가 일으킨 환경 오염 문제로 피해를 본다. 일본·한국·미국 등에서 발생한 전자제품 쓰레기를 중국이 수입함으로써 환경 오염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나오지 않아

다행스러운 점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들도 환경 경영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민간 교류가 세계 통합 이끈다”

조원일 아시아-유럽재단 사무총장 인터뷰

아시아-유럽재단은 38개 아셈 국가들이 1997년 만든 국제기구로서 정부와 시민 사회를 연결하는 다리 구실을 한다. 이 국제기구를 이끄는 수장은 한국인인 조원일 대사(60)이다. 한국이 파견한 초대사는 지난해 아시아-유럽재단 3대 사무총장에 선출되었다. 아시아-유럽 환경 포럼이 열린 자카르타에서 그를 만났다.

재단에서는 환경 문제만 주로 다루니?

그렇지 않다. 매년 60여 개의 크고 작은 행사를 주최한다. 환경뿐 아니라 경제·무역·투자·민주화·교육·문화 등 아시아-유럽 지역의 주요 이슈를 모두 다룬다. 아셈은 정부끼리의 모임이어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쉽지 않다. 민간 교류를 늘려 아셈 국가의 공동 이슈를 원활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재단의 임무다.

아시아-유럽 지역의 민간 교류를 늘려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

학계나 비정부기구 같은 시민 사회는 정부가 보지 못하고 손대지 못하는 분야를 보완할 수 있다. 민간 교류를 통해 각 나라 시민 사회의 의견을 한데 모아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유럽이 통합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합 덕이었고, 두 나라의 화합을 이뤄낸 것은 7천 개가 넘는 양국의 민간 교류 프로그램이었다. 그것이 민간 교류의 힘이다.

재단은 어떤 일을 더 할 계획인가?

아시아에 대한 유럽인의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아시아도 유럽을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럴 때 양쪽 지역의 문화 교류를 더 늘려야 한다. 아시아-유럽 지역의 대학 교환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시아와 유럽의 공동 문화 포털 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시아 유럽 만화가 대회, 종교인 포럼, 언론인 회의 등 다양한 시민 사회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두 지역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서로의 문화와 사고를 이해할 기회를 자주 만들 생각이다.



조원일 아시아-유럽재단 사무총장.

는 점이다. 예전대 아시아개발은행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도 14001(제품과 생산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바꿀 수 있는 환경 경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받을 수 있는 국제 환경 인증 규격) 인증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전체 14001 인증 수 가운데 40%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받은 것이다. 중국에서 14001 인증을 받은 기업은 최근 3년 동안

200% 이상 증가했다.

매킬리 박사는 "환경 경영은 위협에서 기회로 바뀌고 있다. 인도에서는 섬유와 수공예 회사들이 환경 친화적 제품을 생산해 유럽 시장에 내놓음으로써 큰 이익을 얻고 있다. 또 환경 친화적 상품과 서비스 시장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기업들이 마인드를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환경 관련 시장 규모는 올해 6천70억 달러로 성장했고, 2016년에는 8천3백60억 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 관련 시장 규모는 2005년 현재 3백70억 달러에 불과하지만 2015년까지 세 배로 늘어난다는 것이 아시아개발은행의 전망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아시아와 유럽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 참가자들에게는 아시아의 상황을 파악하고, 아시아 참가자들에게는 한 발짝 앞선 유럽의 지속 가능 발전 모델을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포럼에 참가했던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윤승준 국장은 "지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국가만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공유한 것만으로도 이번 포럼이 가진 의의는 충분하다"라고 말했다.

자카르타·안은주 기자
anjoo@sisapress.com